

어린이 책꽂이

▲처음 자전거를 뚝친 날=같은 교실과 마을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성격도 다르고 꿈도 다르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이들의 섬세한 감성과 변화, 어른세계에 대한 꿈이 탁월하게 묘사된 올니버스 동화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생각이 통하는 상식=통합논술에 대비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책으로, 잘 알려진 동화나 우화, 영화 등을 변형해 총 5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했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유추, 연상 등 여러가지 방법의 발달과 생활상식을 배운다.



(싱크하우스·9천500원)

▲그 많은 공룡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흥미진진한 과학책이다. 공룡의 생김새에서부터 종류, 육식공룡의 사냥법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대교베셀스만·8천500원)

▲곰뱅이 제하가 달라졌어요 = 지각 대장 이제하는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느릿느릿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곰뱅이라고 놀림을 당한다. 제하가 파뿌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성실, 절약, 근면, 배려, 봉사 미덕을 배우게 되는 자기계발동화다.



(매일경제신문사·8천원)

▲해시계랑 측우기랑 빛나는 우리 발명품 = 가마솥, 장승, 복주머니 등 '옛 물건으로 만나는 우리문화 시리즈' 우리 조상들이 발명한 해시계와 측우기 등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해와나무·1만3천원)

캐리커처에 포착된 유럽 여성의 삶

캐리커처로 본 여성 풍속사 에두아르트 폭스 지음

캐리커처(caricature)는 '과장된 것, 왜곡된 것' 등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caricatura'에서 나온 말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과장해서 풍자적으로 그린 회화를 말한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풍자는 사회의 부조리하고 잘못된 점을 비교해서 정곡을 찌르는 요소로 활용돼 왔다. 즉, 풍자는 시대상을 깨달아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그림 속 세상은 현실에서 보여주기 힘든 것들도 '간단하게' 보여준다. 캐리커처 수집가이자 역사가인 에두아르트 폭스의 '캐리커처로 본 여성 풍속사'는 여성을 다룬 캐리커처 500여점을 바탕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여성의 풍속과 사회상을 다루고 있다.

여성 문제는 역사 이래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적용돼 왔다. 저자는 수천년 동안 여성은 육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로 억압받아 왔으며,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500여점 풍자만화 바탕 성윤리·결혼관 등 다뤄



18세기 여성들의 거대한 모자 패션을 풍자한 캐리커처. 영국 롤랜드스 작(1786년).

우리 조상들은 풍류를 통해 사람 사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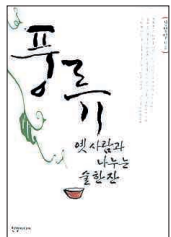
풍류, 옛 사람과 ... 신정일 지음

흔히 우리 민족을 '잘 노는 민족'이라고 한다. 얼마나 잘 놀았길래...

'우리땅걸기모임' 대표이기도 한 문화사학자 신정일 씨가 쓴 '풍류, 옛 사람과 나누는 술 한 잔'은 옛 사람들의 노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우리 조상들이 풍류를 통해 사람을 사귀었고, 심신을 단련했다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풍류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멋과 멋과 운치, 그리고 글과 음악과 술 등 여유롭게 노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rien꽃이 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새벽에 배를 띄우고, 눈이 쌓인 달밤에 매화나무 밑에서 거문고를 탔으며, 만개한 국화를 손님 삼아 술을 권하는 등 '멋있게 노는 법'을 엿볼 수 있다.



(한얼미디어·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34세 요절작가 위해 동료들이 쓴 추모글

소진의 기억 김정환·성석제외 지음

지난 1997년 서른 넷의 나이로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의 작품은 늘 주류가 아닌, '주변부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아프고 모진 인생이지만 그는 늘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그들을 보듬어 왔다.

그의 10주기를 맞아 동료와 선배 문인들에 그에 대한 글을 모은 '소진의 기억'을 펴냈다.

김정환·신현민·안찬수는 시를 통해, 성석제·구효서·이해경·한창훈·김연수·천운영은 산문을 통해, 윤성희·김중혁·권연서·전성태는 소설을 통해 그를 추억한다.

김형중·이경재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취잡기' 등에 김씨의 대표작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문학동네·1만1천원)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미하일 솔로호프 '고요한 돈강'

하는 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일생동안 많은 책을 읽게 된다. 나의 경우도 경제학, 법학 등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책은 물론이고 시, 소설, 수필 등도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중 감명깊게 읽은 책은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문학류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긴 호흡을 갖고 대하게 되는 대하 장편소설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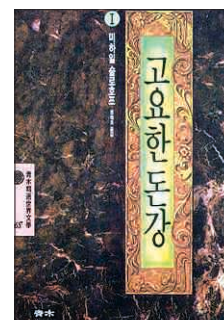
20년 여전에 읽었던 노벨문학상 수상작 미하일 솔로호프(1905~1984)의 '고요한 돈강'(일월서각)은 많은 세월이 흘러 등장인물 이름도 가물가물 하지만 아직도 긴 여운이 가슴에 맴돌고 있다.

책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돈강지방 카자흐족을 배경으로 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그리고 뒤이은 내전 상황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청년 그레고리 메레호프는 이웃마을 정열적인 유부녀 아크시아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아버지와 가족들은 정숙한 나탈리아와 결혼시키지만 그레고리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아크시아를 찾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주인공은 전선터로 나가 용감히 싸우고, 그가 전쟁에 나간 사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크시아는 귀족학교의 유혹에 빠져 버린다.

자연과 전쟁, 사랑의 대서사시



이를 알게된 주인공은 분노를 삼키며 부인 나탈리아 곁으로 돌아간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적군과 백군간에 참혹한 내전이 시작되고, 백군의 장교가 된 그레고리는 또 다시 아크시아를 만나게 되지만 이에 절망한 부인 나탈리아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내전에서 레닌이 지휘하는 적군의 승리로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백군에 협력했던 전역 때문에 도망을 시도하다 붙잡히고 다시 적군에 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백군 전력으로 인해 체포되자 도망을 가 반군에 가담하다 반군에도 실망하여 아크시아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적군의 총격을 받아 아크시아는 숨진다. 주인공은 객지를 전전하다 가족들 대부분이 숨지고 어린 아들만 남아있는 돈지방으로 돌아오게 된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삶들이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현대사를 다룬 소설이 대부분 지나치게 자의적인 이분적 구도로 다룬데 비해 이 소설은 본능에 충실하고 표류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혁명과 반혁명을 담담하게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20여년 전 주로 출근버스 안에서 읽었는데 소설의 분위기에 휩싸여 눈가에 이슬이 맺힌 기억이 몇 번 있다.

특히 나탈리아가 자살하는 장면에서는 그러한 감정이입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다. 그 긴 여운은 사건의 오묘한 본질 없지 않아 아직도 내마음 속 깊은 강으로 남아있는 '돈강'처럼 조그마한 물결이 때 일렁이고 있다.

정봉채 (전남지방경찰청장)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한 김치.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0505-313-1515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동아외국어학원 www.donga.tv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 www.donga.tv